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19년 5월 17일(금)

(음력 4월 13일)

Пятница

17 мая 2019г.

№ 19(116836)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단신

사할린주민, 건강검진에 초대

사할린에서 <건강> 행사가 4월 27일에 시작하여 5월 18일에도 행사가 진행된다. 이 행사에는 이미 4개 지방- 코르사코브, 아니와, 돌린스크, 유즈노사할린스크- 주민들 약 300명이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았다.

5월 18일에는 포로나이스크, 마카로브, 우글레고르스크, 스미르너홉스크, 토마리구역의 주민들을 위한 건강검진이 조성된다. 이때 진료시간은 오전 10시 - 오후 14시로 각 구역 병원에서 환자를 접수한다.

도로 개건에 무심한 지방 수장들 비판

지난 13일(월) 열린 주정부 회의에서 사할린주 도로 및 교통산업부 리에두아르트 장관 권한 대행은 올해 지방 구역 도로 개건에 15억루블리를 책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각 지방의 도로 38km (58개의 도로 대상)를 새로 개건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일부 지방에서는 공식적 서류가 미비로 서명이 안 된 관계로 도로 29개 대상만 계약이 되어 주지사 대행은 이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5월 13일(월) 저녁6시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체호브극장에서 사할린주에서 5번째 사할린 청소년오케스트라와 한국 농어촌 희망 청소년오케스트라의 합동 연주가 이뤄졌다. (관련 기사 3면) (이예식 기자 촬영)

한국 행안부 대표단, 제7차 사할린 한인 유해봉환 실시

제7차 유골봉환사업, 한인묘지 확인 등의 문제로 지난 11일(토) 7박8일 일정으로 한국 행정안전부 대표단(단장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강제동원희생자유해봉환과 활동준과장)이 사할린을 방문했다.



대표단은 5월 15일(수) 사할린 주정부에서 주경제개발부 알렉세이 부뚜하노브 차관, 러시아외무성 블라지미르 노소브 유즈노사할린스크 대표, 사할린주역사고문서보관소 세르게이 차로츠킨 소장, 주주신분등록국 안나 체벨코와 전문가 등과 만났다.

부뚜하노브 차관은 한국 대표단을 환영하고 러한 협정에 따라 사할린주 정부는 한인 유골봉환 등 사업을 장기간 협조하고 있다고 표명했다.

활동준 행안부 대표단 단장은 대일항쟁기 사할린 지역으로 강제징용되었던 사할린 한인들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함으로써 희생자의 영혼과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추진 경과에 따르면 2013년도부터 유골 71위를 봉환했다고 전했다.

주정부 관계자와의 만남에서 한국대표단은 여러 실무적인 문제를

를 논의하고 늘 협조하는 사할린 정부에 감사를 표했다.

올해는 14위를 봉환할 예정이다. 이번에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코르사코브, 홈스크구역 빠찌레치예마울과 체호브마울, 네웰스크, 돌린스크구역(돌린스크, 우글레사워드스크, 비코브, 소스놉카), 포로나이스크 묘지에 안치된 유골을 발굴 계획이다. 지방자치체의 협조를 받기 위해 행안부 대표단은 네웰스크, 코르사코브, 포로나이스크 등지를 찾아 시장과 구역행정부 관계자와 만남을 가졌다.

사할린 측에서 주한인노인회 김홍지 회장이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노인회장을 통해 행안부는 사할린 지방 행정부 관계자만 아니라 지방 한인 동포들의 도움도 받고 있다.

지난 15일 저녁에는 한국 행정안전부 대표단은 김홍지 주노인회 회장, 박순옥 주한인협회 회장, 박경춘 주이산가족협회 회장, 임엘비라 주인협회 부회장, 배워토리야 새고려신문사 사장과 간담회를 가져 유골봉환 사업에 대한 협조를 부탁했다.

6월 말에나 7월 초에 행안부 대표단이 사할린 현장 답사를 하고 유골은 9월 중순에 발굴·수습하여 전통적으로 사할린 한인문화센터에서 추도식을 거행한 후 한국으로 봉환할 계획이다. (본사 기자)

(사진: 주유즈노사할린스크 한국영사출장소 제공)

사할린 주정부 인사 개편 단행

5월 13일 후보건부 전 장관 박 알렉세이가 사임하고 직무대행으로 블라지미르 유슈크가 부임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군의학 아카데미를 졸업했으며, 여러 의료 분야에서 연수를 받았다. 산부인과 인턴과 군사외과 레지던트 과정도 거쳤다. 모스크바주의 여러 의료기관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고, 지도자로서 역량도 있다. 그는 힘키 제1시병원, 클린시병원 부원장, 클린 지자체 보건국장, 모스크바 주 보건부 제1차관을 역임한 바 있다.

사할린주 자산토지부 장관 직무대행으로 스웨틀라나 날바토바가 부임했다. 2005년에 러시아인민우호대학교 법학과를 수석 졸업하고, 여러 역량 제고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그는 국가두마 연방회의와 러 연방농업부 등에서 전문 법률가로 활약했다. 사할린 주정부에 부임하기 전에 사업체에서 근무했다.

사할린주 정부 및 주지사 행정실장 직무대행으로 파벨 예고로브가 임명되었다. 예고로브는 1968년생의 고리키시 출신으로 니즈니 노브고로드 경영사업대학을 졸업했고, 불가연방관구 감사관실 행정실장, 불가연방관구 러시아대통령전권대표실 조직문서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사할린에 부임하기 전 <아세>엔지니어링 업체의 조직문서국장을 맡았었다.

(주정부 홍보실 자료에서)

사할린주 4월 물가 상승률 0.3%

2019년4월 사할린주 소비자 물가지수는 100.3%에 해당됐다(2018년 4월에는 100.2%). 한 달 만에 식품 품목은 0.5%, 비 식품 품목은 0.3%로 가격이 상승, 서비스 품목은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연초에 0.7% 상승했다.

구근류 가격은 감자를 비롯해 평균 2% 가격이 상승했고 채소류의 가격은 계절적 영향을 받아 변동된다. 부족한 채소들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채소 품목의 가격은 한 달 만에 양파가 13.7%(52.51루블리), 브로콜리는 13.5%(50.84루블리), 당근은 5.1%(52.19루블리), 감자는 2%(35.75루블리),오이는 1.3%(170.21루블리), 마늘은 1%(201.40루블리)로 상승했다.

과일 품목의 가격은 사과가 1.9%, 바나나가 1.1%, 포도가 0.7% 상승했고 반면 레몬은 4.4% 하락했다

곡물 가격은 기장과 메밀이 6.2-8% 상승해 1킬로그램당 메밀은 47.68루블리, 기장은 88.69루블리에 해당했고, 만나는 2% 오른 반면, 귀리와 백미의 가격은 하락률을 보였다.

육류 품목의 가격은 닭고기가 0.9%, 돼지고기가 0.5%, 분쇄된 육류가 0.4% 하락했다. 연어류를 제외한 어류 품목의 가격은 손질된 생선류가 1.8%, 살코기 생선은 1.6%,

냉동 통생선은 1.5%, 토마토 소스의 생선 통조림은 1%로 상승했고 반면 오징어의 가격은 3.9% 하락했다.

이외에 조사된 식품 품목의 가격은 버터가 3.5%, 트워록은 2.2%, 통후추는 2.1%, 미네랄수와 식수는 1.3% 올랐다. 비 식품군은 큰 가격의 변동 없이 0.3% 상승했다. 하락세를 보인 품목은 성인용 겨울 의류와 신발류, 가전제품으로 나타났고 반면 세제류의 가격은 3% 상승했다.

지역 석유제품은 4월 29일부로 <로스넬치>회사의 주유소에서는 휘발류는 25코페이카가 올랐고 디젤연료의 평균가는 변동이 없었다.

서비스 품목의 가격은 통신비가 5.3% 큰 폭으로 상승했고, 메신저는 4.6% 승용차 세차는 1.9% 상승했다. 관광업종의 서비스는 6.9% 하락세를 보였다.

2019년 4월 말 사할린주 월평균 필수식품군의 가격지수는 5770.12루블리로 전년 대비 1.7% 상승했다. 2018년 4월에는 4.7% 상승한 5333.19루블리였다. 현재 유즈노사할린스크의 필수식품군의 월평균 가격은 5684.34루블리, 포로나이스크는 5496.98루블리, 코르사코브는 5596.50루블리, 오히려 6621.30루블리로 조사되었다. (주통계국 자료에서)

<컴퓨터 살롱>유한책임회사
최 안드레이 겐나지예위츠 (1972
년생) 대표이사를 필자는 작년 여
름에 사할린 엑스트림 하드엔듀
로 레이스(극한의 지형과 상황을
극복하는 하드코어 모터사이클
레이스)에 참가하는 한국선수를
취재했을 때 처음 만나게 되었다.
키가 작은 40대의 동포가 경기
주최 측을 대표해 한국 오토바이
선수들에게 경기의 규칙과 진행
과정을 설명했다. <컴퓨터 살롱>
회사 대표이사로 성공한 비즈니
스맨으로 얼마 전에 소개받았을
때 이분이 바로 그 분이란 걸 알
게 되었다.

- 안드레이 겐나지예위츠, 이
회사에서 일한 지 얼마 되었어요?

- 이 회사는 처음엔 다른 이
름으로 돼 있었는데 이렇게 개편
을 하면서 현재 이름으로 존재하
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회사에
입사할 때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
이 대부분 50대 남성이었습니다.
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
었고 돈벌이도 잘 했습니다.

저는 1994년에 블라디보스토
크 공과기술대학 라디오전자과를
졸업한 후 바로 입사했습니다. 사
실 공장으로 과전반해야 했었는
데 잘 아시다시피 경제위기 시기
여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요. 이 회사에는 컴퓨터를 아는
전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 당시
는 컴퓨터 1대를 팔고 5명이 2개
월간 아무 걱정없이 살아갈 수 있
었거든요. 수익이 엄청난 거지요.
제가 이 회사에서는 기술적 지원
을 맡았죠.

나중에는 27세 때 사장이 되
었고 지분을 받아 설립자 중 하
나가 된 거죠.

익스트림스포츠를 즐기며 늘 도전하는 젊은 기업인



- 현재 <컴퓨터 살롱>은 어떤
회사인가요?

- 처음에는 컴퓨터와 부속품
을 판매하는 회사로 시작하여 나
중에는 서비스관리센터도 구성하
고 공사작업도 합니다. 기자님이
지금 와 계시는 사무실(매점, 서
비스 센터, 창고 등 포함돼 있는
4층 건물)도 우리 회사가 직접 건
축한 건물입니다. 컴퓨터 매매로
번 돈으로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
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건설주문
자였고 다른 편으로 건설집행자
였죠. 건설허가증을 받고 설계를
하고 직접 원하는 건물을 공사했
죠. 물론 하청기업에게 일부 작업
을 맡기기도 했죠.

현재는 우리 전문가들은 엔지
니어링, 환기시스템, 안전시스템,
화재경고시스템 등등 설계 및 공
사를 합니다. 이 모든 작업은 건
설작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할린에네르고 회사를
위해 여러 사업을 펼치고 있어요.

- 전자경매에도 참여하는거
지요?

- 네. 사실 우리 회사가 우리

지역에서 첫 전자경매 참가자 중
하나입니다. 회사는 고급 전문가
들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엔지니
어들이 기반이 되어야 설계프로
젝트를 이룰 수 있는 거잖아요.
이들은 아이디어가 좋아야 하고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능력이 있
어야 합니다. 그저 설치만 할 수
있는 근로자들도 있지만 항상 섭
외해오는 믿음직한 하청업자들이
있어서 건설과정 작업을 걱정하
지 않아요.

현재는 최적화 시대라서 그렇
게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옛날부터 컴퓨터사
업을 크게 했던 회사 중에는 우리
회사와 <크릴리온 서비스>회사만
살아남았습니다. <크릴리온 서
비스>회사 같은 경우에 회사가 처
음부터 서비스 방면으로 사업을
해왔다면 우리 회사는 우선적으로
컴퓨터 매매를 한 회사였습니다.

- 현재 회사는 어떤 상황인가
요? 현재가 가장 좋았어요?

- 아마도 2005-2007년경에
수익이 가장 많았던 해였습니다.
2010년부터는 삶이 경쟁이란 걸
느꼈습니다. 현재는 투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를 또 뭐가
기다릴까?'라고 합니다. 개인업을
하는 사람에게 경영하기에는 열
악한 조건입니다. 재판시스템, 구
태의연한 관행, 부패 등 - 이런 우
리가 다 잘 아는 사실입니다. 2년
전에만 해도 제가 사업이 안전하
다 싶었는데 현재는 나라가 경제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이 느껴져요.
저는 하루 아침에 모든게 끝날 수

있다는 걸 부정하지 않아요. 또 다
른 한편으로 그런 형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저 성실히 노력
할 뿐입니다. 전략을 좀 바꿔서 우
리에게 좋은 최종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항상 저희가 하는 일이 주문자에
게 유익하고 저희들에게는 재미를
가져왔으면 했는데 요즘은 주문자
에게 유익하다 재미있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는 일에서 재미를 보도
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돈벌이도,
일의 보람도 그렇습니다.

- 네, 회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가족 소개를 부탁합
니다.

- 아내는 러시아인이고 입사
할때부터 직장 동료이고 현재 재
정상무를 맡고 있습니다. 외동 아
들은 16세입니다.

- 안드레이 겐나지예위츠 익
스트림 스포츠는 어떻게 좋아하
게 되었습니까?

- 학교에서는 키가 작고 체중
도 적고 해서 유도과 권투를 잘
했습니다. 사실 이 스포츠 종목은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니다.

유치원 때 기억인데 한번 수업
시간에서 막대기에 놀이반지를 던
져야 했는데 꼬마들 중 나만 목표
를 달성했어요. 놀랐어요. 어릴 적
부터 반응속도가 빠르고 점프능력
도 있고 몸이 날렵했던 것 같아요.
타고 난 능력인가봐요(웃으면서).
대학시절에 <스포츠 오리엔티

어링>을 전문적으로 했습니다.
마스터 스포츠까지 따냈거든요.
주일에 5번 훈련을 했는데 너무
무리 했었나 봐요. 만성 아킬레스
건 스트레칭 염좌가 생겼어요. 그
래서 체육을 했는데 이 종목 전문
스포츠는 포기해야만 했어요. 그
당시 제가 19세였거든요. 다른 데
도 호기심이 많았고 생각지도 안
않았는데 <붉은> (최우등)졸업장
도 뜻밖에 받았습니다. 공부하기
가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23세 처음으로 스노우보드
즐기게 되었고 27세 때는 윈드
서핑을 시작으로 카이 서핑(낙하
산과 판)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좀 미쳤어요. 이를 즐기게 위해
해외 바닷가에도 자주 갔었지요.

한 33세에는 산악 스노 모빌
을 하게 되었어요. 39세에는 익
스트림 모터사이클을 시작했구요.
스노우 바이크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절에 따라 여러 스포츠
를 즐겨요. 물론 이를 통해 몇 번
사고도 당했습니다. 부러진 뼈도
있고 여러 번 수술을 받은 적도 있
습니다. 되게도 위험한 스포츠들
이잖아요. 그리고 요가를 합니다.
이미 장기간 하고 있는데 치료운
동으로 시작했는데 효과가 너무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개인적으로 스포츠를 즐기는 것도
있지만 익스트림스포츠협회 사무
총장으로 경기도 제대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 재미있는 얘기를 나누어주
셔서 감사합니다.

(배순신 기자)

이모저모

5월 23일과 6월 1일 유즈노사할린스크 주류 판매소에서 구매 금지

학년 말(마지막 종소리)기념행사의 날과 국제아동
보호의 날에 주류제품 전면 판매 금지를 유즈노사할
린스크 업체들에게 알렸다.

제33호-2013년 4월 26일부의 <사할린주 내에서
알코올 제품 판매 추가 제한에 대한 법>에 따라 5월
23일과 6월 1일 양일간 도수 높은 알코올 제품, 맥주
등 주류 판매가 제한된다고 시청 홍보실이 전했다.

23 мая и 1 июня южносахалинцы не смогут купить алкоголь в магазин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им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м напоминают о
запрете продажи спиртных напитков в день проведения
торжественных линеек, посвященных окончанию учебного
года, а также в Международный день защиты детей.

23 мая и 1 июня продажа крепкой алкогольной про
дукции, пива и прочих спиртосодержащих напитков буд
дет ограничена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о статьей 1 закона
№33-30 от 26.04.2013 "Об установлении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ограничений
розничной продажи алкогольной продукции",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эрии.

<당신이 기업가다> 포럼에 사할린 주민들의 참가를 기다린다

5월 24일-25일 진행되는 <당신이 기업가다>청
년포럼 행사에 참가 신청이 시작되었다. 이 행사는 주
중앙도시에서 유즈노사할린스크 행정부와 사할린주
청년사업청의 후원으로 진행한다. 기업인들을 위한
포럼에 참가 연령은 18세부터 35세까지로 다른 도시
에서 초대된 강연자들이 참가한다.

- 알랴나 니초라 — <도쿄>레스토랑 체인 설립자.
- 엘게니 쉬카루파 — <로스트(성장)>러시아-아시
아 경영학교 지도자.
- 일흠 이스마일로브 — Plov.com 회사의 창업자,
사장.
- 드미트리 알렉세예브 — DNS회사 창업자, 사무

총장 등이다

주최 측에 따르면 청년 기업인 포럼은 우선 경영
운영의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공유하고 새로운 사업
적 교류 및 경험 공유, 협력자와 고객을 탐색하는 데
있다.

참가 희망자는 자신의 경영계획을 소개할 수 있고
발표자 중 우수자는 <당신이 기업인이다> 전 러시아
경연대회에 참가할 기회가 주어진다고 시청 홍보실이
전했다. 신청지원은 5월 23일까지 접수된다.

Сахалинцев приглашаю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форуме "Ты —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

Открыт прием заявок на участие в молодежном фо
руме "Ты —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йдет
24-25 мая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под эгидой администра
ц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молодеж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форуме для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в возрасте от 18
до 35 лет примет участие большая команда спикеров, в
том числе приглашенные гости из других городов:

- Алена Ницора — основатель сети ресторанов
"Токио";
- Евгений Шкарупа — руководитель русско-
азиатской бизнес-школы "Рост";
- Илхом Исмаилов — основатель и директор компа
нии Plov.com;
- Дмитрий Алексеев — основатель и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компании DNS и другие.

Как отмечают организаторы, форум молодых пред
принимателей — это прежде всего знания о новейших
технологиях ведения бизнеса, новые деловые знаком
ства, обмен опытом, поиск партнеров и клиентов.

Все желающие могут представить свои бизнес-
проекты, лучшие из них получают возможность поучаст
вовать во всероссийском конкурсе "Ты — предпринима
тель!",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у мэрии. Заявки принима
ются до 23 мая включительно.

의료봉사단 정기적으로 쿠릴 주민 방문

5월 14일 제21회 <러시아 국경> 정기 의료검진봉
사단이 쿠릴 주민들을 찾았다. 의료봉사단의 목적은
의료기관과 먼 곳에 사는 섬 주민들에게 고급 전문의
술을 보급하려는 데 있다.

의료진은 지역적으로 부족한 성인과 아동 대상의

전문의들(산부인과 의사, 신경과 의사, 이비인후과 전
문의, 정형외과 전문의, 안과 전문의 등 총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중 3명이 유즈노사할린스크 의료진이고 그 외에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스몰렌스크, 체복사리
의 의료진이다. 이들은 5월 22일까지 쿠릴스크시를
비롯해 레이워도촌과 고랴치촌에서 환자를 진료할 예
정이다.

의료봉사단의 활동은 쿠릴 기업 <기드로스트로이>
의 지도부와 <안드레이 페르보즈단너>재단의 기획으
로 2007년부터 이투루프섬에서 방문 진료를 해오고
있다. 쿠릴 주민들 가운데 이들의 활동이 잘 알려져
수많은 진료 대기순서가 이를 증거하고 있다.

<러시아 국경>의료봉사단은 1년에 2번 봄과 가을
에 쿠릴지역을 찾는다. 매번 방문 시 2천 명 이상의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다. 봄에는 방학을 앞두고 있는
아동들을 진료하고 가을에는 성인들을 진료해 왔으나
이번 방문에서는 진행해온 방식을 벗어났다고 <기드
로스트로이>쿠릴 기업 측이 전했다.

지도부의 요청으로 소아과 병원의 전문의들이 충
원되었고 성인 대상으로는 내과, 심장학, 신경학 전문
의들이 충원되었다. 새로운 점은 현장에서 신속하게
조직검사를 할 수 있도록 임상실험실의 의료진이 봉
사단에 포함된 것이다. 이로써 쿠릴 주민들은 진료차
유즈노사할린스크에 가야하거나 2개월의 진단 결과
를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

Курильчане выстроились в очередь к приезжим врачам-волонтерам

В Курильске 14 мая стартовала очередная, 21-я по счету
медико-просветительская экспедиция «Рубежи России».

Цель экспедиции — оказание высокопрофессио
нальной врачебной помощи островитянам, живущим
вдали от медицинских центров. В составе «взрослые» и
детские врачи тех специальностей, с которыми в рай
оне дефицит — это кардиолог, гинеколог, невролог, лор,
ортопед, офтальмолог и прочие — всего 15 человек.
Трое из них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Остальные — из Мо
сквы,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Смоленска, Чебоксар. Прием
будет вестись до 22 мая в Курильске, а также в посел
ках Рейдово и Горячие Ключи.

(8면에 계속)

한국 민요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심심 산천에 백도라지...' 합동 연주

5월 13일(월) 저녁6시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체호브극장에서 사할린주에서 5번째 사할린 청소년오케스트라와 한국 농어촌 희망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합동 연주가 이뤄졌다. 9일(목)에 내도한 키도(KYDO, 40여명)는 사할린 청소년 오케스트라와 교류 연주 5주년을 맞아 첫 공연을 5월 12일(일) 코르사코브시 '오케안' 문화회관에서 펼쳤다.

KYDO는 괴산 청소년오케스트라의 이원희 지휘자, 사할린 청소년오케스트라는 빅토리아 유흐마노와 지휘자가 1부와 2부로 나누어 지휘했다. 20년

로 각인될 것이며 또한 사할린의 문화공간에서 함께하는 음악 애호가들에게는 기억에 오래 남을 것이라 본다. 바라는 모든 참가자들에게는 창의적인 영감과 동료와의 열정적 만남을 기원하고 내빈들께서는 밝고 긍정적인 감성을 느끼시길 바란다."는 인사말을 전했다.

사할린주 문화고문 서부에서는 마사회의 김낙순 회장과 최인용 렛츠런재단 사무총장과 감사장을 증정했다.

마사회 렛츠런재단의 최인용 사무총장은 "사할린에서 사할린 청소년들과 한국의 청소년들이 어울려 하나의

뮤직(The sound of music)'에 삽입된 노래들로 잘 알려진 '에델바이스', '도레미송' 등을 비롯해 다수의 노래들이 메들리로 연주되었다. 스위스의 알프스산을 떠올리게하는 노래들은 밝고, 즐겁고 경쾌한 리듬으로 침체된 분위기를 상승시키는 힘이 있다. 마지막으로 슬라브적 박진감이 넘치는 차이코프스키의 심포니 4번5악장이 연주되었다. 뜨거운 갈채를 받으며 이원희 지휘자는 앙코르곡으로 러시아의 가요 <백학(журавль)>과 <백만송이 장미>, <카츄샤> 등 듣기만 해도 흥얼거리게 되는 곡들이 연주

다. 다음 곡은 이탈리아의 바이올리니스트 니콜로 파가니니의 (1782년-1840년) 곡으로 2013년에 개봉된 영화 '파가니니 -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에서 파가니니의 연인 살루이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연주로 부르는 아리아 <나 그대만 생각해Io ti penso amore>를 바이올린에 빅토리아 마조로와, 솔리스트에 스네자나 라가잔과의 협연에 단조의 곡의 애타는 듯한 노래와 바이올린의 강렬하고도 부드러운 선율은 심장을 타고 흘렀다. 절절한 노래의 가사 일부는 이렇다. '나 그대를 생각하네. 내 사랑, 녀실대는 바닷물에 태양빛이 눈부실 때... 고요한 호숫가에 달빛이 은은할 때. ... 깊은 밤 어둠이 깔리고 적막한 밤이 되어도 나는 그대를 느끼네.'

이어 듀엣으로 <이별의 노래 Time to say goodbye>와 협연을 하면서 무대는 더욱 풍성해졌다. 만들어진 악기만의 소리가 아닌 사람의 소리가 합하여 하모니는 더하였다.

이어 주세페 베르디의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동백꽃을 든 여인)' 중 <죽배의 노래>는 솔리스트 레오니드 브세볼로즈스키와 협연을 했고 마지막 곡으로 러시아 민요 중 <칼린카>는 화려한 의상과 생생한 자연적인 목소리로 부르는 에트노스 아동 예술학교 학생들의 노래와 제1음악학교의 민속악기연주단이 참가하여 오케스트라가 협연을 하면서 무대는 화음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이번 합동 연주회는 포스터나 프로그램 안내지가 없어 연주 내용을 알지 못하고 듣게 되어 생경했을 거라 예상된다. 그러나 5번째 사할린에서의 합동 연주는 전보다 더욱 무르익고, 화려하고, 작은 불협화음도 펼쳐내는 하모니로 풍성해졌다.

앞으로 9월에는 사할린 청소년오케스트라가 한국을 방문해 합동 연주를 열게 된다. 이런 교류가 무수한 음악인을 양성하고 배출하는 산실이 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업적이다.

(박혜신)

(사진: 이예식 기자)



전 시작된 사할린 지방 학교에서의 음악교육으로 지금은 7개 지방에서 선발된 학생 연주자들이 오케스트라에 참가하게 되었다. 한국의 농어촌 희망 청소년 오케스트라도 한국의 각 지방에서 연주자로 선발된 학생들이 사할린을 찾았다.

공연에 앞서 사할린과 한국 청소년 간에 우호 증진을 위한 합동 연주의 장을 마련하게 된 데 대한 의의를 밝히며 주 문화고문서부를가 니콜리나 차관의 인사가 있었다.

"사할린 청소년 오케스트라와 한국의 KYDO(농어촌 희망 청소년오케스트라)가 참가해 합동 연주를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양국 간 공동 예술기획은 우호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오늘 공연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처음 연주하는 연주자들을 지원하며 재능을 발전시키기 위한 우정의 행사로서 양국의 청소년들에게는 창조적이고 경이로운 분위기

음악을 함께 연주하는 소리는 천국의 하모니처럼 들린다. 양국 간 청소년들의 교류 연주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자리가 되길 기원한다. 음악에는 국경이 없다. 한국 마사회는 한국과 러시아 청소년 간에 음악 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주 정부와 문화부장관에게 감사의 드린다."며 답사를 했다.

1부는 한국의 이원희 지휘자의 지휘로 5곡과 앙코르곡이 연주되었다.

첫 곡으로 독일의 희곡 '로자문데'상연을 위해 슈베르트가 완성한 서곡을 연주, 이탈리아의 가곡 중 익숙한 곡으로는 '돌아오라. 소렌토로', '푸니쿨리푸리쿨라', 한국의 민요 중에서 '도라지'가 연주되었다. 봄바람처럼 부드러운 현악의 연주는 도라지를 캐는 봄처녀의 경쾌한 걸음과 설렘을 느끼게 했다. 이어 1965년에 개봉되었던 미국 영화 '사운드 오브

되어 관객들은 함께 박수를 치며 흥을 돋우었다.

2부에서는 사할린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빅토리아 유흐마노와의 지휘로 이어진 가운데 이탈리아 음악가들의 오페라 곡들과 함께 솔리스트의 노래로 협연이 이뤄졌다.

2부 첫 곡은 비제의 '칼렌' 중 <투우사의 노래>는 씩씩함과 화려함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고 이어 이탈리아의 음악가 조아키노 로시니의 '세빌리아 이발사' 중 <나는 이 거리의 제일 가는 이발사>, 자코모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부인' 중 2막1장의 <어느 맑게 개인 날>을 솔리스트 스네자나 라가잔과 협연했다. 안토닌 드보르작의 <신세계 교향곡>은 시작부터 장엄하고 시원스럽게 행진해나가듯 연주되었고 2악장의 <꿈속에 그려라 그리운 고향>은 서정적으로 아름답게 이어졌다. 청소년들이 꿈꾸는 신세계를 향한 전진과 꿈꾸는 고향을 향한 아련함이 표현되었

한국 마사회, 사할린 한인들을 위한 위문 잔치와 망향의 언덕에서 봉사활동 펼쳐

지난 9일 5박6일 일정으로 사할린을 찾은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 렛츠런재단 봉사단(16명)이 사할린주한인협회(회장 박순옥)와 함께 여러 활동을 펼쳤다.

지난 11일(토) 사할린 한인 문화센터에서는 한국 마사회에서 사할린 한인 1세들을 위한 위문 잔치를 열었다. 이날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어르신들은 정성껏 차려놓은 상에 앉아 렛츠런재단이 후원하는 키도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공연을 즐길 수 있었다. 이들은 '도라지' 민요부터 시작해 러시아의 민요 '카츄샤' 등 노래를 들려주어 대환영을 받았다. <에트노스>예술학교의 무용단들의 무대도 역시 갈채를 받았다. 초등학생들의 공연은 귀여웠고 중학생들의 무용은 우아했다. 강팔용, 미야타 토시미 동포 가수의 공연도 한층 분위기를 돋우었다.

봉사단은 공연과 식사 대접만 아니라 이날 어르신들에게 선물도 선사했다. 다음날 봉사단은 코르사코브 망향의 언덕에 세워진 사할린 한인 희생자위령탑을 찾아 추모식과 현장 미화 사업을 진행했다. 추모식에는 코르사코브시 관계자, 키도(KYDO) 오케스트라 연주자, 사할린주한인회 활동가, 렛츠런재단의 봉사단, 코르사코브 한인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참가했다.

코르사코브시 그리고리 오고로드니코프 부시장, 마사회 자원봉사단 단장인 최인용 렛츠런재단 사무총장, 주유즈노사할린스크한국영사출장소 박기동 소장, 코르사코브한인회 이태출 회장이 이날 사할린한인들의 강제징용역사를 되새기며 망향의 언덕 위령탑은 추위와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잃은 한인들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조각물임을 상기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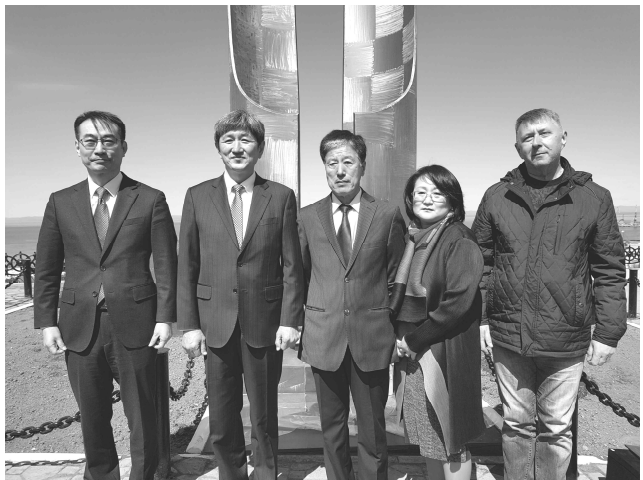
키도 청소년 연주자들은 작은 공연으로 사할린한인 강제징용자들의 넋을 위로했다.

이날 봉사단은 페인트칠도 하고 현장 청소를 하였다.

봉사에 참가했던 한국마사회 이선미 대리는 "공기업인 한국마사회는 과거부터 해외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는 다른 해와 달리 우리 한인들의 한과 그리움이 사무쳐 있는 역사적 공간에서 직접 봉사활동을 하게 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기쁩니다. 저 자신뿐만 아니라 이러한 역사적 사건이 있었던 일을 가슴 속에 되새기어 선조들의 역사를 아아가게 되어 기쁨이 두 배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봉사단 단장인 최인용 렛츠런재단 사무총장은 마사회는 해마다 해외 봉사 활동은 하는데 보통 해마다 다른 곳에서, 사할린이 의미 있는 곳이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봉사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취재: 배순신, 이예식)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Ресторан "Гагарин"

Шведский стол (будние дни)

с 12.00-15.00

Юбилей, свадьбы, дни рождения

(по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й заявке)

с 18.00-24.00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Комсомольская, 133
тел.: 49-84-02



«СЭ КОРЕ СИНМУН» объявляет о литературном конкурсе на корейском и русском языках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в честь 70-летия газеты объявляет о проведении литературного конкурса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и конкурса эссе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Работы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могут быть любого содержания. Эссе на русском ограничивается темами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том числе история семьи),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и культура. Ограничений по возрасту для участия нет.

Работы принимаются в редакции по адресу: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указать обязательно). В электронном варианте работы можно прислать по следующим адресам: vika131065@gmail.com,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Указать фамилию, имя, возраст, профессию, место учебы (для учащихся), контактный номер телефона.

Телефон для справок: 43-67-85, 43-72-94.

Работы принимаются до 20 мая 2019 г.

Призы:

Поездка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в т.ч. путевка для школьников в летний языковой лагерь при университете Генхи на 2 недели).

Лауреаты награждаются грамотами и подарками.

Все участники получают сертификат участника.

Юные музыканты Сахалина и Южной Кореи дали совместный концерт

На сцен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го "Чехов-центра" состоялся концерт классической музыки. В нем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более ста юных сахалинских и корейских музыкантов.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шло в рамках подписанного соглашения между Сахалинским областным научно-методическим центром по образованию в сфере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а (СОНМЦ) и ассоциацией верховой езд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и.

"Образ совместного исполнения музыкальных произведений молодежными оркестрами двух

поучаствовать в серьезном конкурсном отборе. По правилам эт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поехать с оркестром в зарубежные гастроли дети могут лишь один раз.

"Такое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на уровне наших молодых и талантливых детей способствуют развитию контактов между жителями двух стран, — считает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льга Николина. — Двусторонние культурные обмены наверняка

кий промежуток времени подготовили выступление сводного оркестра классической музыки, ансамбля русских народных инструментов из детской музыкальной школы №1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а также фольклорного ансамбля "Солнцеворот" из школы искусств "Этнос", которые вместе исполнили одну из самых узнаваемых русских народных песен "Калинка" под аплодисменты переполненного зала.

"У детей было не так много времени, чтобы сыграть, всего



стран слышится, как звучание гармонии ангелов, — заявил руководитель фонда Let's Run ассоциации верховой езд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и Че Ин Ён. — Хотелось бы, чтобы через совместный оркестровый обмен, через любовь к музыке, молодежь из России и Южной Кореи стала больше понимать друг друга. Ведь в музыке нет границ, разделяющих территории государств".

В Сахалинском детском симфоническом оркестре выступают лучшие юные музыканты из семи районов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В рамках двух концертов на сцену вышли ребята из Углегорска, Шахтерска, Невельска, Холмска, Анивы, Охи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сего же за двадцатилетнюю историю оркестра через него прошли сотни талантливых музыкантов.

Молодежный оркестр "Мечта" свои кадры ищет по всей Кореи. Попастъ в этот коллектив считается престижным. Чтобы поехать на Сахалин, претендентам пришлось

запомнятся их участникам созидающей и невероятной атмосферой. Уверена, что совместные выступ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го детского симфонического оркестра и молодежного оркестра "Мечта"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и, которые прошли на Сахалине, заняли достойное место в культурн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нашего региона. И надолго запомнятся как участникам, так и любителям музыки, которым в эти дни удалось послушать игру наших замечательных музыкантов".

Традиционно в первой части оркестр выступает под управлением приезжего дирижера. Оба концерта открывал Ли Вон Хи. Во второй части программы дирижировала сахалинка Виктория Юхманова.

В концерте прозвучали увертюры Шуберта, Россини и Бизе, симфонии Чайковского и Дворжака, произведения Паганини и Верди. Ну, а в завершении любителей классической музыки ждал небольшой сюрприз. Организаторы пошли на эксперимент и за корот-

два с половиной дня, — говорит директор научно-методического центра по образованию в сфере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а (СОНМЦ) Елена Манойленко. —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ошлым годом репертуар оркестра значительно усложнился. Наши дети играют музыку всех времен, начиная от классических произведений и заканчивая народными мелодиями и произведениями современных авторов. Кроме того, в этом году были включены вокальные номера, что ещё больше усложнило программу".

В Южной Кореи к организации этой поездки отнеслись со всей серьезностью. Оба концерта — из Корсакова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 транслировались в прямом эфире в сети Интернет. Организацию этой трансляции взяли на себя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омпании KRBC.

Планируется, что в сентябре сахалинские юные музыканты посетят Южную Корею с ответным визитом, сообщает СОНМЦ.

Фото Ли Е Сик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иглашает на работу молодых людей на должность корреспондента.

Испытательный срок 3 месяца, знание ПК на уровне пользователя, корейский - начальный уровень.

Тел. 43-59-80, 43-67-85.

Контактный телефон: 43-67-85, 43-72-94.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새고려신문 살리자

러시아에 사시는 분들은 이 계좌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2810750340100530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한국에서는: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190-01-021311

예금주 BYA VIKTORIYA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Президент РК призвал политические круги объединить усилия в решении актуальных проблем

Президент РК Мун Чжэ Ин призвал политические круги объединить усилия в решении актуальных проблем,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по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ю ухудшающимся внешним экономическим условиям. Выступая 14 мая на заседании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он также подчеркнул необходимость скорейшего проведения переговоров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правительства и политических партий с тем, чтобы найти выход из кризиса в полит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По его словам, работа парламента должна проходить в штатном режиме независимо от полит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Мун Чжэ Ин отметил, что партии 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договорились о создании механизма всестороннего диалога, предложив начать с обсуждения наиболее неотложных вопросов. Он отметил важность скорейшего рассмотрения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бюджета. Президент подчеркнул важность принятия законодательных инициатив, связанных с жизнью людей, заявив, что ни один законопроект не был одобрен в ходе апрельской сессии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Мун Чжэ Ин призвал рассмотреть законопроекты по реформированию системы минимального размера оплаты труда, а также гибкого рабочего графика, чтобы устранить неопределённость на рынке. К тому же оппозиция настаивала на этом.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выразил надежду на то, что контакты с лидерами партий позволят создать политику диалога, а не противостояния.

Сеул рассмотрит возможность оказания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ой помощи КНДР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приняло решение рассмотреть возможность оказания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ой помощи уязвимым слоям населения КНДР. Такое решение связано с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м призывом главы Всемирной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ой программы (WFP) Дэвида Бисли. Встретившись в Сеуле с президентом РК Мун Чжэ Ином, министром по дела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Ким Ён Чхолом и главой МИД Кан Гён Хва, он отметил серьёзность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ой проблемы в КНДР. Ким Ён Чхоль выразил согласие с позицией WFP, заявив, что необходимо разделять понятия гуманизма и политики. Он обещал рассмотреть возможность поддержки Севера. В нынешней ситуации, когда КНДР, запустив ракеты, провела демонстрацию силы, правительство не может без веских оснований говорить о прямом предоставлении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КНДР. Поэтому помощь будет предоставляться, скорее всего, через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В конце мая в РК пройдут учения Ulchi Taegyeuk

В конце мая в РК пройдут военно-гражданские учения Ulchi Taegyeuk. Об этом сообщил 14 мая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Чхве Хён Су. Они будут проходить с 27 по 30 мая. Данные манёвры объединяют учения южнокорейских вооружённых сил Taegyeuk и часть южнокорейско-американских учений Ulchi Freedom Guardian. Их целью является укрепление возможностей вооружённых сил РК по самостоятельному отражению вооружённых нападений и действия в чрезвычайных ситуациях, включая террористические акты и стихийные бедствия. Командно-штабные учения «Тонмэн 19-2», которые являются сокращённой версией Ulchi Freedom Guardian, пройдут в августе. (RKI)

Премия «дебют» литературного конкурса газеты конкурса газеты «Кенбукдеильныйос»

Наташа

Ю Сони



Кореи, хотелось внести свою маленькую лепту в приобщении разбросанных по всей России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к своей родной культуре. В 2016 году, планируя праздничный концерт, посвященный 71-летию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я решила поехать в место, где проживают наш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И мне захотелось посетить Сахалин, который наши СМИ в своих репортажах всегда связывали с вечной мерзлотой и ностальгией по Родине. Тем временем, Наташа со своей семьей переехали на постоянное место жительства в Пусан и стала называться Енсук. Сейчас ее работа связана с русской школой. Когда я готовилась к концерту на Сахалине, Наташа помогала мне переводить буклет об ансамбле и информацию для афиши. Во время перевода вступительного слова в буклете на русский язык она спросила: «Неужели ты не знала, где находится Сахалин?» Я еще раз прочитала свое вступление – «... Я никогда особо не задумывалась о Сахалине – японские это земли или российские. Я не знала, что там многие старики так и умерли, не дождавшись возвращения на Родину. Я вытащила карту и нашла это место – совсем недалеко от Кореи. Так близко и так далеко».

Сейчас, когда я оглядываюсь назад, я с сожалением думаю о том, что совсем не интересовалась историей и не проявляла интереса к этому трагическому периоду своей страны, который принес столько лишений и боли нашим предкам, и Наташа по-своему объяснила мне же мое вступление. Она хорошо владеет корейским языком, но ее родным языком является русский, поэтому сможет ли она полностью понять и передать замысел и подтекст моих слов? Мне было немного стыдно за себя, за корейскую подругу, которая проявила некое равнодушие и безразличие к истории переселения корейцев на Сахалин, потому что она, у которой дедушка и бабушка являются первым поколением, а папа с мамой – вторым, с самого детства видела эту тоску по родине и боль потери.

- Я действительно не знала, где Сахалин и почему там живут корейцы.
- Я - не корейн.
- Тогда кто?
- Я – сахалинская корейка.

И не только она, но и все корейцы, проживающие на Сахалине, в чьих жилах течет корейская кровь, как один называют себя сахалинскими корейцами. И это их исторически отличает от корейцев, которые разбросаны по Средней Азии. Может потому что с молоком матери передалась ей там ноющая тоска по далекой Родине; с рассказами о дедушке, который в результате насильственного переселения во время японской аннексии был привезен на Сахалин, и всю свою жизнь, спрятавшись в глубине дома и настроив радио на минимальную громкость, ждал хоть какую-то новость об объединении, а может быть из разговоров деда с внучкой, где он делился своими воспоминаниями.

В августе 2016 года, вложив свои деньги, я организовала концерт в Сахалин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Около 300 корейцев пришли на эту встречу. Безо всякой спонсорской помощи, взяв в руки лишь свой музыкальный инструмент и сувенирный флаг Кореи, мы приехали на эту землю вечной мерзлоты. Увидев этих убежденных

сединами стариков, которые пришли на встречу с артистами из Кореи, пожалела, что не привезла из дома хотя бы якква (национальные сладости). Мы исполнили народные мелодии, которые были популярны в начале 20 века во время японской оккупации, а также Ариран. Флейта относится к духовому инструменту, поэтому ровное дыхание является обязательным условием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исполнения.

Как только заиграли первые ноты песни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то тут, то там зрители стали вытаскивать носовые платки и вытирать накопившиеся слезы. Увидев это со сцены, в какой-то момент у меня к горлу подкатил ком, впереди все поплыло и глаза наполнились слезами. От нахлынувших эмоций я вынуждена была остановиться. Мои артисты, ожидавшие знака для вступления, замерли. Когда и старики, и я немного успокоились, мы продолжили выступление. Сколько же им пришлось вынести лишений и боли на чужой земле? Можно ли смыть одной песней эту глубокую душевную рану? И в голове лишь стучала мысль, что, как ни мы, должны позаботиться о них, чья жизнь, подобно выставшей в лютых морозах зимней сливе, подверглась разлуке с родиной и всем невзгодам чужестранца.

В августе 2018 года я поехала на Сахалин во второй раз. Как и 2 года назад посетила краеведческий музей и встретилась с сахалинскими корейцами. Но знакомые уже семейные истории обрели новый смысл и звучали как будто по-другому. Разве это было справедливо - после притеснений со стороны японцев еще и во времена бывшего СССР лишиться шансов на полноценную жизнь? Они не могли свободно перемещаться по стране, были лишены всякого права выбора и вынуждены были лишь терпеть. Во второй свой приезд я увидела старые здания японской постройки. После поражения в войне японцы бросили свои заводы, шахты, дома, развалившиеся останки которых я увидела на Сахалине. Мне кажется, сквозь разбитые окна покрывшегося ржавчиной старого здания я увидела корейскую девочку-подростка, кожа да кости, которую привезли сюда и заставили работать. Гнетущая безысходность...

Моя подруга Наташа родилась в Иркутске. Говорят, что во времена СССР корейцам, получившим гражданство этой страны, было разрешено ехать на учебу только в ограниченное количество городов, в том числе и в Иркутск. В надежде, что, получив высшее образование, когда-нибудь можно будет вернуться на Родину, старики отправляли своих детей на учебу. Там и родилась Наташа. Когда их называли там корейцами, они непременно всех поправляли, что он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тем самым как будто решив, что у них свой путь. И это вовсе не потому, что им не нравилось это название, а потому, что люди вокруг совсем не понимали, что с этим связана другая, отличавшая их от других корейцев, судьба.

Всю жизнь ощущая себя чужестранкой, Наташа хотела понять, кто она, и новое корейское имя Енсук, возможно, помогло ей приблизиться к этой мечте. Она переехала в Корею, в страну, где живут похожие на нее люди, но насколько эта страна готова была принять ее? Даже я каждый раз говорила ей: «У нас так не принято». Даже я, после 25 лет дружбы, не воспринимала ее как корейку. Однажды она сказала: «Когда я жила в России, я думала, что я корейка, а когда я приехала в Корею, я чувствую себя русской». Может она и сама все еще в поиске?

Но, несмотря на это, она полна планов. Ведь что как ни реализованная мечта исцеляет душу и восстанавливает в ней мир, свободный от предрассудков и несправедливости. Чтобы обрести это мир, Наташа не загоняет себя в какие-то рамки, а, наоборот, старается быть межкультурным мостиком в стремящемся к глобализации миру. И я говорю ей: «Вперед! Я с тобой!».

(перевод с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газета Кенбукдеильныйос, 23 апреля)

С начала года из-за черты бедности вывели 10,5 тысяч сахалинцев

Этого удалось достичь за счет адресного подхода при оказании помощи нуждающимся и введения ряда новых льгот. Данная информация была озвучена на заседани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Если на начало года показатель уровня бедности в регионе составлял 9,7 процентов, то сейчас он снизился до 7,5 процента.

На заседании было озвучено, что чаще всего с бедностью сталкиваются семьи с детьми, одинокие пенсионеры и безработные. Задач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 помочь каждому нуждающемуся,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 пенсионерам. В этом году был изменен подход к оказанию помощи, она стала индивидуальной и адресной. Кроме того, был введен новый пакет льгот.

По данным министерства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наилучший результат достигнут в работе с малоимущими пенсионерами. Показатель бедности среди этой категории граждан с 3,4 процента сократился до 1,6 процента.

Напомним, для повышения благосостояния сахалинцев на островах ежегодно расширяют перечень мер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Только с 1 января 2019 года их стало на 7 больше. На реализацию новых льгот в этом году направлено более 60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Средства пошли сахалинцам на возмещение части затрат по покупке твердого топлива и оборудования для приема цифрового телевидения. С нового года ветеранам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ежемесячно выплачивается 1,5 тысячи рублей, а с 1 апреля семьям с новорожденными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комплект детских принадлежностей.

Однако, существующих мер поддержки недостаточно для сокращения числа бедных в регионе. В 2019 году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ля отдельных категорий граждан будут введены новые льготы. Региональное министерство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прорабатывает их с депутатами облдумы и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других ведомств.

В планах - введение ежемесячной выплаты семьям с детьми, которая будет предоставляться до получения места в дошкольном учреждении. Также сахалинские власти намерены увеличить средний размер стоимости адресной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ой помощи с 2700 рублей до 4100 рублей.

Следующая мера - для безработных, желающих выйти из трудной жизненной ситуации, в рамках социального контракта будут оплачивать расходы, связанные с регистрацией ИП. Кроме того, предложено ввести квоты на предприятиях для участников программы социального контракта, которые прошли обучение 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ую переподготовку.

Также к оказанию помощи малоимущим предлагают привлечь бизнес.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смогут участвовать в проектах «Социальная карта» и «Участие». Первый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систему бонусов и льгот. Он может помочь человеку не только финансово, но и психологически выйти из-за черты бедности. Второй - предполагает адресную помощь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нуждающимся. При этом социальная защита будет выступать посредником между двумя сторонами. По итогам года информацию о таких бизнесменах передадут в правительство для дальнейшего решения о награждении, предоставлении преференций, либо поощрении.

Еще один проект - «Сестра милосердия» - планируют реализовать не только при поддержк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но и областного духовенства. Неработающие граждане смогут пройти бесплатное обучение, а затем оказывать помощь в социальных учреждениях.

По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м расчетам, эти меры позволят снизить уровень бедности на островах к концу 2019 года до 4,6 процента, а к концу 2020 года - до 3,5 процента.

Инициативы областных властей нашли поддержку у депутатов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присутствующих на заседании.

- Мы уже обсуждали новые меры поддержки малоимущих граждан и поддерживаем курс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и врио губернатора на снижение уровня бедности. Эта тема регулярно поднимается во время рабочих поездок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в районы. Запросы людей услышаны, и что хорошо, уже есть конкретные предложения, которые помогут решить эту актуальную проблему. Депутатский корпус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рассмотрит, и думаю, поддержит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инициатив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 отметил председатель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Андрей Хапочкин.

Жителей пяти районов приглашают проверить здоровье

18 мая на Сахалине продолжится акция «Здоровье». Старт мероприятию положен 27 апреля. Тогда около 300 островитян в четырех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ях области – Корсаковского, Анивского, Долинского районов и г.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рошли медицинские обследования.

Усилить среди населения выездную работу врачей с целью ранней диагностики онкологических заболеваний и различных патологических процессов поручил врио

губернатора регион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18 мая приемы врачей будут организованы для жителей Поронайского, Макаровского, Углегорского, Смирныховского и Томаринского районов.

Выходной день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акций выбран неслучайно. По отзывам посетителей, такая форма обращений к медработникам очень удобна. Без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й записи и необходимости отпрашиваться с работы люди могут пройти комплексные обследования, получить консультацию специалиста, а в случае медицинских показаний – направление в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ое учреждение.

- Гостила у дочк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увидела объявление про медицинскую акцию в библиотеке. Сходила и не пожалела – попала к неврологу, врач мне все объяснила про мои болячки, прошла флюорографию, сдала кровь на сахар. Сейчас узнала, что у нас в Поронайске тоже врачи будут вести прием, хочу сходить к кардиологу и эндокринологу, -рассказывает Валентина Матвеева, жительница Поронайска. Она уже купила билеты на поезд, рассчитывает успеть к акции.

18 мая во всех пяти районах мероприятие состоится с 10.00 до 14.00. Желающих приглашают в поликлиники центральных районных больниц. В учреждениях будет организован забор крови для исследования на холестерин и сахар, проведение ЭКГ. Также будут работать мобильные диагностические комплексы – можно будет пройти маммографию и флюорографию. Во время акции будут работать терапевты, а также узкие специалисты – хирурги, кардиологи, гинекологи, неврологи, эндокринологи, специалисты УЗИ и врачи - консультанты по отказу от курения (в районах комплектование врачебных бригад будет разным,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потребности в узких специалистах).

Все исследования проводятся бесплатно, за три часа до обращения на прием не принимать пищу, не курить.

Места проведения акции «Здоровье»:

Углегорск – поликлиника, ул. Победы 145

Поронайск – поликлиника, ул. Октябрьская 69

Макаров – поликлиника, ул. ВЛКСМ, 1

Томари – поликлиника, ул. Садовая 50.

Смирных – поликлиника, ул. Чехова 11-б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изошли кадровые изменения

Владимир Юшук назначен исполняющим обязанности главы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здрава. Светлана Налбатова с 13 мая исполняет обязанности министра имущественных и земельных отношени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авел Егоров вступил в должность исполняющего обязанности управляющего делами губернатора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Юшук с отличием окончил военномедицинскую академию имени С.М. Кирова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Прошел дополнительную подготовку по различным медицинским направлениям в России и Европе. Окончил интернатуру по специальности «Акушерство и гинекология» в Московском областном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м клиническом институте имени М.Ф. Владимирского и ординатуру по специальности «Военно-полевая хирургия»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институте у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я врачей в Москве.

Владимир Николаевич имеет большой опыт клинической работы в стационарах различной направленности. Карьеру начал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вуза в 2002 году, возглавив медицинскую службу военной части Солнечногорска Московской области. Затем работал врачом-гинекологом по оказанию экстренной помощи, старшим ординатором хирургиче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Занимал должность заместителя главного врача в Химкинской городской больнице №1 и Клинской городской больнице.

Он хорошо проявил себя и на руководящих постах – являлся начальником управления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Клинского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района, заместителем, а после – первым заместителем министр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Москов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Юшук – капитан медицинской службы в запасе. Женат, воспитывает трех дочерей.

Министерство имущественных и земельных отношени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озглавила Светлана Налбатова. В 2005 году она с отличием окончила юридический факультет Россий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дружбы народов, проходила обучение на экономическом факультете Финансового института при Правительств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курсах повышения квалификации РАНХиГС, прошла ряд стажировок в европейских вузах, свободно владеет английским языком.

Трудов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Светлана Ивановна начала в Общероссий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Добровольное общество содействия армии, авиации и флоту России». Занимала должности ведущего юрисконсульта, главного юрисконсульта и начальника отдела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ой и договорной работы.

Светлана Налбатова работала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е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занималась законодатель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ью по направлению международно-правов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сфере борьбы с терроризмом, организованной преступностью, незаконным оборотом наркотиков и пригранич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2009 году получила Благодарность руководителя аппарат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за безупречную и эффективную гражданскую службу, а в 2011 году была награждена почетной грамотой аппарата Госдумы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аботала юристом-аналитиком в некоммерческом партнерстве «Центр проблемного анализа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управленческого проектирования» в Москве. С 2014 года занималась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ой работой в Министерстве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До назначения в сахалинск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е работала в коммерческих организациях.

Светлана Налбатова воспитывает дочь.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произошло еще одно кадровое назначение. В должность исполняющего обязанности управляющего делами губернатора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ступил Павел Егоров.

Он родился в Горьком в 1968 году. В 2003 году окончил Нижегородский институт менеджмента и бизнеса. Имеет классные чины: действительны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советник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3 класса, действительный муниципальный советник 2 класса.

Трудов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Павел Анатольевич начал в 1987 году – работал мастером сварочного цеха завода «Красное Сормово имени А. А. Жданова» в Нижнем Новгороде.

В 2002 году он возглавил аппарат глав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инспектора по Нижегородской области Аппарата полномочн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я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Приволжском Федеральном округе. Затем Павел Егоров работал начальником департамента организационного и документацион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аппарата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лномочн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я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Приволжском Федеральном округе.

До переезда на Сахалин занимал должность начальника управления организационного и документацион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управляющей компании АО Инжиниринговая компания «АСЭ».

Павел Егоров женат, воспитывает дочь.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бъявлена мобилизационная готовность на пожароопасный период

Такое решение было озвучено на совещании в областн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е. С начала противопожарного сезон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11 пожаров на территории области.

Пожароопасный сезон в регионе объявлен с 15 апреля, а с 1 мая – на землях лесного фонда. Однако большинство районов в требованиях противопожар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пренебрегло.

Как рассказал начальник глав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МЧС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дрей Андреев, наиболее успешно работа по предупреждению пожаров организована в Корсаковском, Долинском и Поронайском районах. Отрицательная ситуация сложилась в Ногликском, Охинском, Холмском, Томаринском и Южно-Курильском городских округах.

- В большинстве случаев пожары возникают из-за невыполнения органами местного самоуправления правил противопожарного режима, - отметил Андрей Андреев. - Первое серьезное предупреждение было получено 18 апреля - в Углегорском районе сгорели дачные домики. Дальше практически все пустыри были подвержены многочисленным возгораниям. В третьей декаде апреля огонь вышел за пределы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ов – гореть начало вдоль отвода автомобильных и железных дорог.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только в 68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ах области убрали мусор и сухую траву. В 122 городах и селах нормативными правовыми актами определили места, где можно законно разводить костры.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для пожаротушения используется почти 3,5 тысячи водоисточников – пожарных гидрантов, водоемов, пирсов, водонапорных башен. Глава региона поручил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проверить их исправность.

Кроме того, в области будет усилен общественный контроль над пожарной обстановкой. Сегодня в районах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действует 81 общественное объединение пожарной охраны, где состоят более 6,5 тысяч добровольных пожарных. Планируется активнее привлекать их к работе. Участники пожарных дружин могут заниматься патрулированием и оперативно сообщать в единую дежурно-диспетчерскую службу, где сжигают мусор, горит трава и происходят другие нарушения. Также добровольцы могут принимать меры для ликвидации очагов возгорания и оказывать содействие профессионалам.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경북제일뉴스 신춘문에 당선작품

나타샤

유선이

정체성이란 말에 대한 나의 관심은 아마도 러시아에 유학을 하면서부터 시작된 것 같다.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기존에 살던 땅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뜻하는 디아스포라(Diaspora)라는 개념을 접한 것도 이 즈음이라 여겨진다. 나는 부모님이 한국인이고,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정체성이란 개념을 몰라도 살아가는 데 아무 지장이 없었다.

아이덴티티(identity)의 문제가 부모의 국적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러시아 유학 중 나타샤를 통해 알았다. 우리 인간은 대체로 동일시 욕망 때문에 살아간다. 욕망의 대상은 내가 생각하기 나름이고 그러기 때문에 ‘정체성’은 인위적이고 위험할 수 있다. 정체성을 가지는 순간 고뇌가 시작된다. 러시아에 태어나서 러시아어를 쓰는 나타샤가 한국인의 정체성을 갖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모두 되여가는 것이지 정해진 것은 아니다. 나는 고려인이 아니라 한국인이라고 하는 순간, 나의 정체성이 생겨나는 것이다. 바로 내 유학시절의 친구 나타샤의 경우다.

“나는 고려인이 아니야”
“그럼 누구네?”
“나는 사할린교포야”

개인은 외부로부터 분리되기 어려운 존재다. 본토를 떠나 항구적으로 나라 밖에 자리 잡은 집단에 쓰는 말이 디아스포라다. 나타샤를 알게 된 지도 거의 25년이 다 되어간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나의 모스크바 유학시절 친구인 나타샤는 방학 때마다 부모님이 계시는 사할린 집에 다녀오곤 했다. 얼마나 땅덩어리가 넓으면 같은 러시아 안에서도 비행기를 타고 열 시간을 넘게 간다는 것일까. 그냥 그렇게 나에게 사할린이라는 곳은 나타샤의 집이 있는 넓고 넓은 러시아의 동쪽 어디쯤이란 인식이 전부였다. 디아스포라니, 정체성이니 하는 개념은 애당초 나타샤를 만나기 전에 내 머리 속에는 없었다.

20대 중반의 나는 역사에 관심이 없었고 애국심은 더더욱 없는 여학생이었다. 모스크바의 추운 날씨에 다리 살이 벌겋게 얼어도 오로지 미니스커트에 얹은 스타킹을 신고 유행을 좇아 몇 내기에 관심이 많은 철없는 음악 전공 유학생이었다. 공부가 끝나 한국에 귀국하면 꼭 무엇인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꿈과 기대가 있었다. 타고난 천재적 재능과 음악적 끼는 없지만 음악을 전공한다는 자부심과 예술적 사치, 허세도 조금은 지니고 있었던 것 같다. 그래도 학업에 지치고 유학생생활이 힘들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힘이 되어 주고, 러시아어로 졸업 논문을 쓸 때에도 많은 도움을 준 나타샤가 있었고, 나는 그녀를 고려인 친구 나타샤라고 소개하곤 했다.

미국에 재미교포가 있고, 일본에 재일교포가 있듯이 처음에는 러시아에도 고려인이라고 불리는 러시아교포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러시아교포는 왜 재러교포 라고 부르지 않고 고려인이라고 하는지 알지 못했고, 그렇다고 그것이 크게 궁금하지도 않았다. 2015년 나는 외교부 주관 사업이었던 광복70주년기념사업 유라시아친선특급의 국민대표 공모에 선정되었다. 14,400km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한국 문화를 알리는 일에 참여하였다. 정부 주관의 사업에 함께하면서 광복과 독립운동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알게 됐고, 유라시아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인인 나도 유라시아에 흠어져 살고 있는 고려인들에게 한국의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시도해보고 싶었다.

2016년 나는 광복71주년 기념음악회를 기획해 우리 동포가 많이 사는 곳에 가서 연주를 하는 계획을 세웠다. 언론에서 동토의 땅, 설움의 땅이라고 늘 의미를 두며 이야기하는 사할린을 가보고 싶어졌다. 그런 일을 하는 동안, 나타샤는 가족들과 부산으로 이주하여 '영숙'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거주권을 취득했다. 지금 그녀는 부산에서 러시아교육 사업을 하고 있다. 사할린 방문 음악회를 준비할 그때 당시 나의 뜻을 알아주고 음악회 포스터며 팸플렛 제작에 나타샤가 러시아어 번역을 도와주었다. 음악회 팸플렛에 내가 쓴 인사말을 러시아어로 번역하던 나타샤가 물었다. "사할린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내 인사말을 다시 읽어보니 "사할린, 일본 땅인지, 러시아 땅인지 모르고 살았다.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곳에서 그렇게 한국을 그리워하다 돌아가신 줄 몰랐다. 지도를 꺼내 그 곳을 찾아보니 한국과 가까이 있다.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서도 그렇게 멀리 계셨는지 몰랐다"라고 적혀 있었다.

일본 강점기 시절에 우리 조상들이 받은 핍박과 아픔에 관심을 두지 않아서 너무 역사의식이 부족했던 나를 뒤돌아보고 반성한다는 뜻으로 쓴 글인데, 나타샤는 나의 인사말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 것이다. 한국말을 아주 잘하지만 모국어는 러시아어이기 때문에 글 속의 언표 내적 의미나 어감은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사할린교포 1세인 그녀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2세인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고국에 대한 아픔과 그리움을 어렸을 적부터 보고 들었기 때문에 사할린역사에 무심한 한국이, 사할린에 대해 모르는 친구인 내가 서운했을 것이다.

“솔직히 사할린이 어디 있는지 왜 고려인이 거기에 많이 사는지 잘 몰랐어.”
“나 고려인 아니야”
“그럼 누구네?”
“사할린교포야”

그녀뿐만 아니라 사할린에 살고 있는 한민족의 피가 흐르고 있는 러시아 고려인들은 하나같이 스스로를 사할린교포라고 했다. 유라시아에 흠어져 살고 있는 고려인들과는 다른 역사적 차이를 두었다. 일본 강점기 때 사할린에 강제징용된 할아버지는 방 한쪽 구석에서 라디오 불륨을 아주 작게 틀어놓고 고국의 독립 소식을 기다렸다는 어머니를 통해 들은 이야기와, 어린 나타샤에게 할아버지가 들려주셨던 고향의 이야기만으로도 대한민국은 그녀에게도 뱃속 깊숙이 심어진 그리움이었을 것이다.

나는 자비를 들여 2016년 8월 사할린 한인문화센터에서 광복71주년기념음악회를 열었다. 300여 명의 사할린교포들이 찾아와 주셨다. 그 어떤 후원도 누구의 협찬도 없이 악기 하나와 손 태극기 하나를 들고 동토의 땅을 찾았다. 고국에서 온 연주자들을 만나기 위해 문화센터를 찾아오신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막상 보니 회비라도 걷어 한국에서 흔한 약과라도 쟁과와 나눠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후회가 들었다. 우리는 1900년대 초 일제 강점기시대 때 작곡된 동요와 아리랑을 연주했다. 플루트라는 악기는 호흡으로 부는 목관악기라 호흡이 흔들리면 연주가 되질 않는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멜로디를 연주하는 순간 객석 곳곳에서 손수건을 꺼내들고 눈물을 흘린다. 그 모습을 무대 위에서 바라보는 순간, 나의 숨이 흔들렸다.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고 동공이 축축해졌다. 흐르는 눈물에 연주가 멈춰졌고, 옆에서 내 짜인을 기다리며 이어서 연주를 하려던 연주자들도 따라

서 흐느낀다. 잠시 그렇게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나도 흐느끼다 숨을 가다듬고 연주를 이어나갔다. 이분들은 타국에서 아픈 인고의 삶을 견뎌낸 분들이다. 심중에 쌓인 천만금 양금의 무게를 어찌 이 노래 하나로 씻어 낼 수 있을까. 조국을 잃고 눈물로 지센 그들의 한 맺힌 이방인의 길을 가슴 시린 정월달 대화처럼 초연히 건디며 사진 그들의 삶을 우리는 보듬어 껴안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2018년 8월 두 번째 사할린을 방문했다. 2년 전 방문했던 역사박물관과 사할린교포들을 다시 만났다. 그때 들었던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를 듣는 데도 내게는 새로운 이야기와 의미로 전해졌다. 일본의 탄압에 이어 인간으로서의 모든 가능성이 차단된 채 소련의 공산체제가 우리 고려인들에게 허용한 삶은 철저한 자기부정뿐이었을 것이다. 자유롭게 원하는 곳에서 살 수 있는 선택권이 없었기에 억지로 그렇게 참고 살아왔을 뿐이었다. 두 번째 방문에는 러시아 사할린 거리와 건물 속에 일본의 잔해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일본의 패망 이후 일본인들이 운영하고 관리하던 공장과 건물들이 버려지고 무너진 채로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는 곳도 직접 보았다. 녹슬고 폐허가 된 공장 건물, 깨진 유리창 너머로 강제 징용되어 끌려와 일하고 있는, 비쩍 마른 어린 조선 여자아이가 보이는 듯하다. 주위 공기가 음침하고 스산하다.

내 친구 나타샤는 러시아 국적으로 이르쿠츠크에서 태어났다. 구소련시대 소련 국적을 취득한 한인들만 이르쿠츠크에 있는 대학에서 공부를 할 수 있었다고 한다. 배워서 푹푹해야 고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사할린에 계신 그녀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렇게 나타샤의 부모님들을 이르쿠츠크대학에 보냈고, 그런 까닭으로 거기서 나타샤는 태어났다. 그녀는 우리 한국인들이 자신들을 고려인이라고 부르자, 자신들을 사할린교포라고 고쳐 말하고 사할린교포로 살아가기로 작심한 것이다. 자신들을 고려인들이라 불려지는 것에 대한 불편함은 자신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무관심과 몰이해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녀는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청산하고 스스로의 꿈이 실현되는 것을 기대하며 한국이를 영속이로서의 정체성을 되찾고자 노력했다. 스스로가 정체성을 찾으려고 자신과 가장 닮은 사람들이 사는 한국을 찾아왔지만, 우리는 그들의 정체성을 어디까지 인정하는 걸까. 나 또한 나타샤에게 어떤 사실이나 상황을 이야기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사회성이나 습성이 있어'라고 설명한다. 25년 지기인 나조차도 그녀를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언젠가 나타샤가 이야기했다. 러시아에서는 자기들을 러시아에 사는 한인이라고 하고, 한국에서는 한국에 사는 러시아인이라고 한다고. 이러니 자기의 정체성을 자신도 못 찾는 게 아닐까.

그럼에도 나타샤는 지금도 꿈을 꾸고 있다. 꿈은 사회적 편견과 부당한 대우로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되는 하나의 장치로 기능한다. 깊은 자각으로 정체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나타샤는 지금까지 국한 된 그 문제를 뛰어넘어 이제 글로벌 다문화 시대의 문화적, 교육적 교량 역할을 담당하려고 한다. 나 또한 그녀를 응원하며 그 교량 교각의 한 부분이 되고자 한다.

25년지기 내 친구 이름은 김나타샤영숙이다.

P.S
글 속 주인공 나타샤는 현재 부산 RUSSIA COLLEGE 교장 Janna Vladimirovna Ten
정영순으로 나의 모스크바 유학시절부터 지금까지 25년지기 친구인 실존 인물이다.

(출처: 경북제일뉴스, 2019/04/23)



유선이

부산 출생 모스크바 그네신국립음대 졸업
창신대학교 음악과 외래교수
동의대학교 예술종합콘서바토리 외래교수

당선소감

당선소식이 이렇게 두렵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어떻게 표현해야 이 기쁨과 동시에 찾아든 두려운 마음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룩문학록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쓰르트르의 룩피로써 쓰라롭고 한 말이다. 나는 문학성도 중요하지만 작가정신이 더 중요하다고 배웠기 때문이다.

35년간 음악과 살아오면서 10여 년 간 문학의 문에도 서성거렸다. 오직 음악을 위해 공부하고 연습하고 힘들고 긴 유학생생활을 했다. 또 음악가로 인정받기 위해 연주하고 학생들을 지도해 왔으며 지금도 그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내가, 음악이 아닌 수필로 인정받아 신춘문에 당선되어야겠다고 생각한 건 수필에 대한 매력과 자신감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문학가가 되기 위해 나는 최고의 작가에게 글을 쓰는 방법을 배웠다. 다양한 세상과 사람들을 만났던 경험과 기회들을 음악가의 감성과 시선으로 표현했던 것이 좋은 글을 쓰는 데 도움이 되었을까. 문학가의 존재이유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타자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치유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근래 자주 듣게 되는 일본강점기 사할린강제징용 한인들의 아픈 삶의 생애기에 내가 귀를 기울이게 된 것은 순전히 나의 지식인이라는 자각에서 비롯되었다. 내 친구 나타샤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이 기막힌 현실을 수필로 작품화하지 않고는 건널 수 없었다. 그 할아버지의 손녀딸 한인3세 나타샤가 겪고 있는 정체성의 문제를 수필로 형상화한 것은 역시 주효했다. 자조문학이라는 수필에서 벗어나 나는 늘 저항성의 측면에서 문학을 생각했다. 개인주체가 아닌 공동주체로서 **멀리** 내다본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아 기쁘다. 나타샤에게 미안한 마음은 일단 접어두고 늦었지만 한민족의 정체성을 찾아 한국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친구에게 응원과 박수를 보내고 싶다.

태풍 '위투'로 파손된 사이판 유일의 한글학교 재외동포재단의 지원으로 새 터전 마련

작년 말, 태풍 '위투'로 파손된 사이판 한인회관 및 한글학교가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 이하 재단)의 지원으로 새 터전을 마련하게 됐다.

8일 현지에서 열린 사이판 한인회관 및 한글학교 보수 완공 기념식에는 오영훈 재외동포재단 기획이사, 임희순 외교부 주하와나 출장소장, 장능식 사이판 한인회장, 홍차희 한글학교 이사장 및 지역한인 등 80여 명이 참석해 완공을 축하했다.

지난 10월말 발생한 태풍 '위투'는 900여채의 주택 등 건물 파손, 1,000여명의 이재민 등 사이판 동포사회에 큰 아픔을 남겼다.

- 재단은 사이판 피해현장을 방문하여 동포사회의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동포사회 구심점 역할을 하는 사이판 유일의 한인회관 및 한글학교에 보수비용 전액을 지원했다.

재단의 동포사회 천체지변 등 피해복구 지원 사례

- 2014년, 화재로 전소된 미국 '애틀랜타 한인회관' 재건 지원

- 2018년, 지진으로 파손된 '네팔 한글학교' 복구 지원

한우성 이사장은 "한글학교가 차세대 한인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는 터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고 홍차희 사이판 한글학교 이사장은 재단의 지원에 감사함을 표하며 "한글학교에서 한글을 동포와 지역사회에 널리 보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이모저모

(2면의 계속)

Напомним, экспедиция ездит на остров Итуруп с 2007 года, идея ее проведения принадлежит руководству работающего на Курилах АО «Гидрострой» и Фонду Андрея Первозванного. За это время она завоевала огромную популярность у курильчан. Свидетельство тому — большие очереди у кабинетов

Экспедиция «Рубежи России» приезжает в Курильский район два раза в год — осенью и весной. Каждый раз они проводят свыше 2 тысяч приемов. Как правило, весной обследуют детей, поскольку впереди у них летний отдых, а осенью — взрослых. Но в этот приезд решили отойти от заведенного правила, рассказали в компании «Гидрострой». По просьбе руководства больницы к детским докторам добавили несколько специалистов для взрослых — гастроэнтеролога, кардиолога, невролога. Другое новшество — в состав медицинского десанта включили врача клинической лабораторной диагностики, чтобы можно было сделать цитологические анализы прямо на месте. Это избавит курильчан от необходимости ехать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 и ждать результатов около двух месяцев.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박물관의 밤> 행사에 '다섯째 요소' 활동 진행

전 러시아 활동으로 <박물관의 밤>행사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5개 주립박물관들이 참가하는 가운데 '다섯째 요소' 활동을 진행한다.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다섯 박물관 중에 한 곳에서 <박물관의 밤> 팸플릿을 받고 방문하는 박물관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각 박물관에서 과제를 이행한 후 건물을 통과하면서 안내원의 도장을 받을 수 있다. 5개의 도장을 다 받게 되면 선물을 받는다.

이 행사에는 <사할린섬> 체호브 책박물관, 주미술박물관, 주향토 박물관, <포베다>종합기념관, <러시아는 나의 역사> 역사공원이 참가한다. 사할린의 <곰 박물관>도 여기에 참가하여 팸플릿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무료로 입장하게 된다. 행사는 5월 18일 18시-24시이며 유즈노사할린스크 미술박물관은 14시-24시까지다.

В "Ночь музеев"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ведут акцию "Пятый элемент"

Во время всероссийской акции "Ночь музеев"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йдет акция "Пятый элемент". В ней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пять областных музеев.

Для участия в мероприятии необходимо получить буклет мероприятий "Ночи музеев" в одном из пяти музеев и собрать печати на его обложке. Отметку можно поставить после прохождения заданий хранителей печати, которых нужно найти в каждом из музеев. Собравший пять печатей получит подарок.

В акции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литературно-художественный музей книги Чехова "Остров Сахалин", областные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и краеведческий музеи, музейно-мемориальный комплекс "Победа" и исторический парк "Россия — моя история".

Сахалинский "Музей медведя" также присоединится к ночной акции и гарантирует бесплатный вход всем предъявителям буклета.

(사할린주 및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새고려신문 창간 70주년 기념

2019년 우리말 및 러시아어 문예콩쿠르

2019년 6월 1일은 새고려신문 창간 70주년 되는 날입니다. 이와 관련해 새고려신문사는 문학콩쿨(글짓기)을 개최합니다.

- **공모대상:** 사할린 및 연해주 · 극동에 살고 있는 주민들(현지인)
- **공모부문:** 글짓기, 체험수기

• **공모주제:** 한민족의 긍지와 동포애를 고취시키고, 민족전통 문화에 대한 자랑과 긍지심을 일깨우는 글. 한국어 본문 주제는 아무 제한이 없으나 러시아어로는 <우리 가족>, 한국어와 한국문화, 전통, 풍습, 사할린 한인 역사에 관련 글만 받습니다.

- **공모기간:** 2019년 5월 20일까지
- **시상:** 상장과 한국방문권 비롯한 여러상품
- **주최:** 사할린 새고려신문사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콩쿠르 자료들을 e-mail: vika131065@mail.ru, vika131065@gmail.com, skr@sakhalin.ru, 또는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Чехова, 37.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새고려신문사로 보내주시시오.

전화: 43-59-80, 43-72-94.

콩쿠르조직위원회

3 · 1운동 100주년 기념 · 새고려신문 창간 70주년 기념
В честь 100-летия Первомайского движения · 70-лет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서울곳, 사할린에 가다

Сеульский шаманский обряд на Сахалине

2019년 5월 19-20일 19-20 мая 2019 г.
우글레고르스크문화회관(5월 19일 16시) Углегорск, РДК (19 мая 2019, 16.00)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5월 20일 18시)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корейский культурный центр (20 мая 2019 г., 18.00)
주최 · 주관 · Организаторы · 새고려신문사 ·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서머니움 박물관(서울) музей шаманизма(Сеул)

Заказывай еду онлайн



eda.sakh.com



ООО "Сах.ком", ОГРН 1046500642264,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реклама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з.а. (주.필) 배 위토리야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